

# 신종 코로나 여파 제주경제 '휘청'

### 항공권 예약률 20~30%·경영악화로 호텔 휴업 잇따라 여행업계·식당가·전통시장 등 사회 모든 분야 충격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의 확산 여파로 제주경제가 멈춰 선 가운데 그 '후폭풍'도 거셀 전망이다. 관광객 급감에 따른 도내 관광관련 업체는 물론 식당가, 소상공인업체, 면세점 등을 타격하며 지역경제의 축을 뒤흔들고 있어 행정당국의 발 빠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5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에 의한 경영 악화로 서부지역 호텔 2곳이 이날부터 6월30일까지 5개월간 잠정 휴업에 들어갔다. 사스나 메르스 등 발생 때에도 잠잠했던 도내 숙박업소들이 공식적으로 휴업을 신고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또한 최근 제주를 다녀간 중국인 확진자 A(52·여)씨가 찾았던 호텔

이 8일까지 휴업 중이다. 도내 카지노 관련 업체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며 휴장을 고려하는 등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

도관광협회 관계자는 "예약 관광객 30~80%가 여행을 취소하는 등 그 여파로 일부 여행업체 및 숙박업소 등이 내부적으로 운영비·인건비 등을 감안해 직원들의 무급휴가나 휴업 자체를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주의 경우 6~7일이 가장 고비인데, 다행히 제주에서의 확진자가 없어 이번 주말부터 업거나 행정차원에서의 마케팅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을 기점으로 제주지역 무사증 출입제도 일시 중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었다. 평균적

으로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중국인이 62%를 차지했던 것과 달리 4일에는 150여명 안팎이 중국발 제주행 항공편 등을 이용해 제주를 찾았다.

문제는 내국인 관광객도 동반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제주를 찾은 내국인은 1만7600명으로 전년(2만8400명) 대비 42.6% 감소했다.

수학여행 등 관광성수기인 4~5월 단체 관광객은 여행 취소로 전무한 상태이며 개별 관광객 역시 줄며 평년에 견줘 항공권 예약률은 20~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행업체에서 항공편 단체석 예약이 마감될 시점인데도 이번 사태에 따른 여행 자체가 없어 이번 주말부터 업거나 행정차원에서의 마케팅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중국인 확진자가 찾아

임시휴업 중인 롯데·신라면세점 2곳도 속앓이를 했다. 영업 손실도 있지만 직원 2600여명이 자가 격리 상태인데다 대부분(1770~1800명 가량) 보육시설 원생이나 저학년 학생을 둔 부모들로 자신과 아이들이 마치 감염자로 인식을 받는 2차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행정당국에서는 공식적인 공문이나 전화 연락도 없어 업체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들 면세점은 7일부터 재개장할 계획이다. 면세점 관계자는 "중국인 확진자가 지난달 23일 매장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고, 제주도청 공식발표에 따르면 해당 매장의 경우 역학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14일이 경과한 시점인 7일 재개장을 결정했다"며 "그 전까지는 좀 더 철저한 방역을 통해 폐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금탁자

## '산간 최대 10cm 눈' 예보 빛나겠다 기상청 "찬공기 머문 시간 예상보다 짧아"

제주 산간에 최대 10cm의 눈이 내릴 것이라던 예보와 달리 눈이 좀처럼 오지 않으면서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제주지방기상청은 5일 오전 4시를 기해 제주 산지에 내리던 대설예비 특보를 해제했다.

전날 기상청은 이날 오전 3시부터 제주에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눈 소식이 예고된 지역은 제주 해안가였다. 지점별 적설량은 산지 5~10cm, 나머지 지역은 1~5cm로 예측됐다.

그러나 예보와 달리 제주 산간에 눈이 조금 왔을 뿐 나머지 지역엔 눈이 내리지 않았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적설량은 진

달래밭 1.6cm, 아리목 0.6cm, 윗세오름 0.5cm에 불과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예상과 달리 북쪽의 찬 고기압이 확장되지 않으면서 상층의 한기가 제주로 밀려들지 않았고 이동 속도도 빨라 제주에 찬공기가 머무는 시기도 예상보다 짧았다"며 "이런 이유로 산지 일부에만 눈이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위는 6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6일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보다 2~3℃ 낮은 -1~1℃, 낮 최고기온은 5~8℃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6일 아침까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체감온도도 낮아 매우 춥겠으며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 2000여만원 주인 찾아준 사회복무요원·시민 '화제'

제주지역 파출소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과 한 시민이 길거리에서 주운 현금과 수표 등 2000여만원을 주인에게 돌려줘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15분쯤 아라파출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정재현(23)씨와 송희재(23)씨는 순찰을 마치고 파출소로 돌아가던 중 아라새마을금고 인근 골목 길가에 떨어져 있는 1000만원 짜리 수표 1매와 현금 20만원을 주었다.

또 같은날 한 시민이 1000만원 짜리 수표 1매와 현금을 포함해 1031만1000원을 비롯한 장소에서 주워 112에 신고했다.

아라파출소는 현금 주인으로 파악된 80대 B씨에게 연락해 잃어버린 2000여만원을 돌려줬다. B씨는 새마을금고에서 2000여만원을 찾아 노인 정으로 가던 중 돈을 분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소중한 돈인데 찾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회복무요원 정씨와 송씨, 그리고 시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상민기자



점심시간도 텅텅 빈 횡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5일 제주시 탐동 인근 한 횡집은 점심시간에도 테이블이 텅텅 비어있다. 이상민기자

## 서귀포지역 해녀 77%는 60~70대

서귀포시 지역내 60~70대 해녀가 전체 해녀 비율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지역내 어촌계 대상으로 물질조업을 하고 있는 현직 해녀 통계조사를 지난 1월 31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통계조사 결과 지난해말 기준으로

서귀포 지역 현직 해녀의 수는 총 1579명으로 전년(1629명)에 비해 50명이 감소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하반기에 첫 도입된 고령해녀 은퇴수당 시행이 현직 해녀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61명이 은퇴를 신청했고 병환에 따른 조업 잠정 중

단 2명, 사망 1명 순으로 64명이 현직에서 제외됐다.

다만, 신규해녀 가입 인원은 14명으로 조금이나마 현직 해녀의 감소를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 19명, 40대 24명, 50대 94명, 60대 469명, 70대 758명, 80대 이상 215명이 해녀로 등록돼 물질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 불법체류자 강제출국없이 신종 코로나 검진

제주지역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무등록 외국인)은 단속 당할 염려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무등록 외국인이 신종 코로나 증상이 의심돼 병원 등 공보건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더라도 환자의 신상정보는 출입국·외국인관청에 통보되지 않는다고 5일 밝

혔다. 앞서 법무부는 감염증 대응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통보 의무 면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체류 신분은 상관 없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면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진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 구입 대란에 '키친타월' 마스크 등장 새마을부녀회·자원봉사센터 10만개 제작·보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마스크 구입 대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 '키친타월'을 이용한 마스크가 제작돼 눈길을 끌고 있다.



>> 사진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새마을부녀회와 자원봉사센터는 이날 1회용 마스크 10만개를 자체 제작해 읍·면·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1회용 마스크는 키친타월을 이용한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공기 전염이 아닌 '비말전염'되는 점에 착안해 제작된 것이다.

아울러 새마을부녀회와 자원봉사센터는 약사회협회가 제작한 손

소독제 자가 제작 방법 홍보물과 2만개 분량의 손소독제 원료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현학수 도특목자치행정국장은 "지역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에 적극 나서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도민 모두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을 위한 개인 안전수칙 준수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은범기자

상 장  
제주혁신성장대상  
2019년 11월 5일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허영호

나눔에너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제주도 에너지공사

벤처기업

인공지능 기술보유

한화 Q-CELL

따뜻한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  
**나눔에너지**  
인공지능보유 / 벤처인증기업 / 고용우수기업

- 현대에너지 솔루션 소프트웨어 계약 성사
- 제주지역 단일공사 1MW급 최초 스크류공사 시행 (시공성 우수, 안정성 우수\_인발테스트 리포트 결과 기준치 대비 1.5배 강함)
-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테크노파크 주관 제주지역 우수사례업체 선정, 제주혁신성장대상

"도내 1 금융권 최소 금리(2% 후반 ~ 3%초반대)로 금융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2019.06  
제주도청 고용우수기업 선정 / 한화 큐셀 (Q-CELL) 제주도 큐파트너 협력기업

2019.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 - 19  
2년연속 제주도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

(주) 나눔에너지 |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211호      시공문의 | TEL. 064 - 745 - 0420      FAX. 070 - 8812 - 0420